

## 신라의 고분, 왕릉의 주인공

2017. 10. 31.

김대환\*

1. 머리말
2. 마립간기 왕릉
3. 중고기 왕릉
4. 중대 및 하대 왕릉
5. 맺음말

### 1. 머리말

신라 왕릉의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긴 역사를 가지지만 근대적인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며 본격적으로 왕릉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연구자가 금관총, 서봉총의 주인공을 비정하거나 외표시설이 있는 왕릉을 편년하고 주인공을 비정했다. 광복 이후 일부 연구자가 개별 왕릉을 비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강우방은 십이지상의 양식 변천을 근거로 왕릉의 상대편년을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강인구와 이근직, 김용성은 신라 왕릉을 종합적으로 편년하고 주인공을 비정했다. 오랜 역사를 가지는 만큼 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은 그렇게 안정적인 비정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문헌 기록의 한계와 고고학적 자료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신라 왕릉 연구는 어느 분야보다도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문헌사학은 기본이고 고고학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미술사학 등이 함께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해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지난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 2. 마립간기 왕릉

#### 1) 마립간기 왕릉의 분별

지금까지 연구자는 마립간기 왕릉을 분별할 때 부장품의 질과 양, 봉분의 규모, 축조 방향, 기형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발굴된 고분은 부장품과 봉분의 규모를, 미발굴 고분은 규모와 축조 방향과 기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는 고분의 규모를 왕릉의 분별의 최대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로 보는 한 마립간기 왕릉의 분별 기준은 봉토의 규모이며, 월성지구고분군에서 최대형분 그룹에 속하는 것만 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일본 교토대학 박사과정(고고학) 수료.

『국가형성의 고고학』(공저, 2008, 사회평론), 『전방후원분과 사회』(역서, 2013, 학연문화사), 『일제강점기 조선 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2017), 『Geumgwanchong Tomb and the Royal Tomb Tradition of the Silla Maripgan Period』(2017),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의 적석부와 목곽부의 성격』(2016), 『진한 ‘國’의 형성과 발전』(2016).

릉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발표자는 여기에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sup>2)</sup>를 왕릉의 분별 기준으로 추가하고 싶다.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는 현재까지 황남대총과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에서만 확인된 구조이며<sup>3)</sup>, 월성지구고분군에서 대형분 이상에만 채용된 것이다. 금관총 재발굴에서 밝혀진 것처럼<sup>4)</sup> 이 지상 적석부는 단순히 봉토의 일부가 아니라 매장의례의 제단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적석 제단이라는 요소도 마립간기 왕릉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최대형분만이 마립간기 왕릉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금관총의 피장자 논쟁과 깊은 관계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만약 금관총의 주인공이 이사지왕이고, 이사지왕이 마립간 중 한 명이라면<sup>5)</sup> 봉분의 규모로 마립간기 왕릉을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봉분의 규모는 마립간기 왕릉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 2) 마립간기 왕릉의 비정

일제강점기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가 금관총을 6세기 전반에 축조된 무덤으로 판단하고, 주인공을 소지왕 또는 지증왕으로 추정한 이래<sup>6)</sup> 마립간기 왕릉의 비정은 신라 고분 고고학의 핵심 논쟁이 되었다. 초기에는 발굴된 고분을 대상으로 왕릉을 비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발굴되지 않은 고분까지 포함해 마립간기 왕릉 모두를 비정하는 안도 제출되어 있다.

발굴된 고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후지이 가즈오와 모리미쓰 도시히코, 이희준의 비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비정안의 특징은 신라 고분을 편년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고분 중 마립간기 왕릉을 분별하고 그것만을 대상으로 주인공을 추정하였다. 발굴되지 않은 고분까지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이종선, 김용성, 박광렬, 최병현, 박천수의 비정안이 있다. 이들은 발굴된 고분 중 최대형분을 먼저 왕릉으로 비정한 후 그것의 축조 방향성과 시간성, 배총의 연대, 배치의 기획성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왕릉까지 비정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대표적인 비정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 
- 2) 이희준, 1996 「경주 월성로 가-13호 적석목곽묘의 연대와 의의」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3) 김대환, 2002 「영남지방 적석목곽묘의 시공적 변천」 『영남고고학』 29.
  - 4) 김대환, 2016 「V. 고찰: 금관총의 구조와 주인공」 『경주 금관총(유구편)』.
  - 5) 김재홍과 김창호는 마립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김재홍, 2014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대도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 86. 김창호, 2014 「신라 금관총의 이사지왕과 적석목곽묘의 편년」 『신라사학보』 32.
  - 6) 濱田耕作, 1932 『慶州の金冠塚』.

	藤井和夫 1979	毛利光俊彦 1983	이종선 1996	김용성 1998	박광렬 2014	최병현 2014	박천수 2016
119호분				내물	내물	실성	내물
황_남분	눌지	눌지	내물	눌지	실성	내물	눌지
황_북분							
금관총	소지		자비				
천마총	지증	소지or지증	소지			지증	
서봉총							
106호분			미추		눌지		
봉황대			눌지	자비	자비	눌지	자비
서봉황대			지증	소지	소지		소지
134호분				지증	지증	소지	지증
90호분			실성			내물父	
39호분						내물祖父	

표 2\_마립간기 왕릉 비정안A(음영은 발굴된 고분)

기타 비정안(황\_남분 : 이희준-김창호(내물)/함순섭(실성)/이주헌(눌지), 황\_북분 : 이주헌(자비), 금관총 : 穴澤和光(소지)/김창호(눌지), 서봉총 : 穴澤和光(소지마립간비 선혜부인).

내물(402)		실성(417)		눌지(458)		자비(479)		소지(500)		지증(514)	
이종선 이희준 최병현 김창호	황_남분	이종선	90호분	藤井和夫 毛利光俊彦 김용성 이주헌 박천수	황_남분	이종선	금관총	藤井和夫	금관총	藤井和夫 최병현	천마총
김용성 박광렬 박천수 함순섭	119호분	박광렬 함순섭	황_남분	이종선 최병현	봉황대	김용성 박광렬 박천수	봉황대	이종선	천마총	이종선	서봉황대
		최병현	119호분	박광렬	106호분	이주헌	황_북분	김용성 박광렬 박천수	서봉황대	김용성 박광렬 박천수	134호분
				김창호	금관총			최병현	134호분		

표 3\_마립간기 왕릉 비정안B(음영은 발굴된 고분)

### 3) 금관총 재발굴과 피장자

#### (1)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회왕

금관총의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하마다 고사쿠가 소지왕릉 또는 지증왕릉으로 비정한 이래 왕릉으로 주장하는 연구자는 자비왕릉과 소지왕릉으로 비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사회왕 명문이 확인되어 금관총 피장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금관총 주인공 논쟁은 금관총 피장자와 이사회왕의 관계가 주된 문제이며, 이사회왕은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실제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되었다(7).

7) 김재홍, 2014 「금관총 출토 ‘이사회왕’명 대도와 피장자」『한국상고사학보』 86. 윤상덕, 2016, 「금관총 피장자의 성격 재고」『고고학지』 22.

첫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일부는 금관총 주인공이 명문대도를 직접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망자를 위해 애도자가 자신의 대도를 넣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번	보고서(유물편) 번호	보고서(유구편) 부장품명	중박 유물번호	명문 내용
1	563	허리띠 부속	미등록 도판 제 39-2	十
2	1228	‘余斯智王刀’ 명문 대도	M366	余斯智王刀/八/十
3	1229	‘余斯智王’ 명문 대도	K618	余斯智王/十/余
4	1230	‘余’ 명문 대도	慶州352	余/八/十
5	1239	금제 칼집 장식	미등록 도판 제 86	八
6	1240	은제 칼집 장식	미등록 도판 제 86	八
7	1245	은제 칼집 끝 장식	미등록 도판 제 86	十
8	1285	-	고적23341	十
9	1287	금동편(추정 칼집 장식)	고적23418	余

표 4\_금관총 부장품 중 이사지왕 및 관련 명문

지금까지 몇 편의 논고가 발표되었으나 이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금관총의 발굴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으나 부장품의 출토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성과는 있었다. 또 다른 이사지왕도 명문(표 3-3)이 출토되었고, 이것이 일제강점기 수습한 대도의 끝 장식임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이사지왕 명문대도가 하나 더 확인되어 금관총에서 총 3자루의 이사지왕 대도가 나온 셈이다<sup>8)</sup>. 이외에도 국립경주박물관이 금관총 부장품 재보고서를 간행하면서 또 다른 이사지왕 명문(표 3)을 확인했다<sup>9)</sup>. 이처럼 기왕에 알려진 명문 이외에 또 다른 부장품에서 이사지왕 관련 명문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명문이 새겨진 부장품 모두를 이사지왕의 소유물이라면 이사지왕이 이 모두를 어떤 망자를 위해 모두 부장했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사지왕이 자기 이름을 새긴 물품 모두를 특정 망자를 위해 부장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장품을 보존처리하면 어쩌면 이사지왕 관련 명문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금관총의 주인공은 상식대로 이사지왕이라고 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일지도 모른다<sup>10)</sup>.

금관총의 주인공이 이사지왕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대도의 부장 양상에 주목한다<sup>11)</sup>. 특히 대도가 착장된 것이 아니라 모두 부장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관총의 대도 부장 양상이 부정확하긴 하지만 축조 연대가 비슷한 천마총의 대도 부장 양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장 양상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천마총의 대도 부장 양상은 피장자가 1점을 패용하고 있고, 나머지 2점은 피장자를 기준으로 좌우 石壇 위에 부장되어 있다<sup>12)</sup>. 즉 1점은 착장, 나머지 2점은 부장인 셈이다. 또 신라의 지방 고총인 경산 임당 유적 임당 1호분의 최근 발굴에서 목곽 내 피장자의 좌우에 대도가 부장된 똑같은 예가 조사되었다<sup>13)</sup>. 이러한 사례는 신라의 중앙과 지방 엘리트의 부장품 매납에서 대도

8) 권윤미, 2016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이사지왕도’명 대도의 제작기법 고찰」 『동원학술논문집』 17.

9) 국립경주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10) 김대환, 2016, 「V. 고찰: 금관총의 구조와 주인공」 『경주 금관총(유구편)』.

11) 김재홍, 2014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대도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 86.

1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4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13) 한빛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임당 1호분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3차)」. 한빛문화재연구

를 망자 좌우에 부장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sup>14)</sup>. 이러한 양상은 그 대도를 피장자의 소유물로 보아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구자봉은 이러한 부장 행위를 ‘봉납’이라는 매납 양식으로 규정했다<sup>15)</sup>. 이처럼 당대 대도를 망자의 주변에 ‘봉납’하는 전통이 있었다면, 착장 아닌 부장이라는 이유로 대도의 주인을 피장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도의 착장 여부는 반드시 대도의 주인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 어려우며, 금관총 피장자의 좌우에 부장된 대도는 피장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금관총의 주인공은 이사지왕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이사지왕이 실제 누구인가라는 문제이다. 김재홍은 자비왕이나 소지왕으로 김창호는 눌지왕으로, 윤상덕은 마립간이 아니라 마립간과 인척 관계에 있는 탁부와 사탁부 출신의 간지급 지위의 인물로 추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문헌기록을 검토한 김재홍과 김창호는 모두 이사지왕을 마립간으로 추정했고, 윤상덕은 고고학적 자료인 봉토의 규모로 마립간이 아닌 것으로 본 점이다. 전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금관총은 마립간기 왕릉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왕릉의 분별 기준이나 지금까지 금관총이 왕릉이 아니라고 한 연구들은 문제가 된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금관총을 왕릉으로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는 입장이 공존해 왔다. 전술했다시피 부장품의 질과 양, 성년 남성이라는 조건으로 후지이 가즈오는 소지왕릉으로 추정했다. 봉분의 규모를 중시하는 입장은 윤상덕의 견해처럼 왕릉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문제는 이사지왕의 마립간 여부인데, 이 문제는 우선 문헌사학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김재홍과 김창호의 주장대로 이사지왕이 마립간이라면 기왕의 마립간기 왕릉 비정은 새롭게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서 금관총의 주인공인 이사지왕이라고 해도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 4) 서봉총 재발굴의 성과와 주인공

##### (1) 서봉총의 축조 연대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가 보고하지 못한 서봉총 부장품을 정식 보고서로 간행했다. 재발굴이 끝나지 않아 아직 종합 고찰이 시도되지 않았으나 이 보고서에서 발표자는 서봉총의 연대와 피장자의 성별을 분명히 한 바 있다<sup>16)</sup>. 서봉총은 일찍부터 은합의 명문에 주목해 신묘년을 391년, 451년, 511년 중 하나로 보고 연대를 추정했다. 일제강점기 하마다 고사쿠는 신묘년을 511년으로 추정했고<sup>17)</sup>, 아나자와 와코우도 이 연대를 지지했다<sup>18)</sup>. 그러나 이후 이흥식<sup>19)</sup>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명문이 고구려 금석문과 유사한 점을 들어 신묘년을 고구려 장수왕 39(451)년으로 보았다.

서봉총의 연대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목곽의 구조와 출토 유물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목곽의 구조에 대해서는 최병현과 모리미쓰 도시히코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병현은 서봉총을 목곽 내의 머리 쪽만 부곽(나무상자)이 있는 IIc식 묘곽으로 분류하고, 이 시기를 자신의 제4기(5세기 중기)로 했다<sup>20)</sup>. 또 모리미쓰 도시히코도 절대연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목곽

원, 2017, 「경산 임당 1호분 발굴조사」.

14) 한빛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임당 1호분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3차)」. 한빛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임당 1호분 발굴조사」.

15) 구자봉, 2005 「삼국시대의 장식대도 연구」『북방사논총』 5, p272.

16) 김대환, 2014, 「IV. 서봉총 출토 유물의 특징과 축조 연대」『경주 서봉총 I(유물편)』.

17) 浜田耕作, 1929 「慶州の瑞鳳塚」『考古遊記』 및 1939 「新羅の寶冠」『考古學研究』.

18) 穴澤和光, 1972 「慶州古新羅古墳の編年」『古代學』 18-2.

19) 李弘植, 1954 「延壽在銘 新羅 銀盒杆에 대한 一、二의 고찰」『최현배선생님 환갑기념 논총』.

20)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의 구조를 자신의 분류 IIb식(主槨棺櫃分離)으로 하였다<sup>21)</sup>. 이토 아키오(伊藤秋男)는 서봉총 출토 이식을 대상으로 축조 연대를 470~520년 사이로 보았다<sup>22)</sup>. 마노메 슌이치(馬目順一)는 금관의 형식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황남대총 북분 - 금관총 - 서봉총 - 천마총 - 금령총으로 상대 편년하고 금관총을 500년 전후로 편년하였다<sup>23)</sup>. 그렇다면 마노메 슌이치는 서봉총을 6세 전반 정도로 본 셈이다. 또 아나자와 와코우는 과거 대장식 과관의 문양 변화를 통해 서봉총을 금관총보다 조금 늦게 편년하고 511년 이후 6세기 전반에 축조되었다고 생각했지만<sup>24)</sup>, 최근 서봉총을 종합 정리한 글에서는 연대를 약간 끌어올려 5세기 말 정도로 추정하는 듯하다<sup>25)</sup>.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는 서봉총을 금관총 다음 단계로 편년하고 5세기 말~6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기본적으로 경주 시내 대형 적석목곽묘 중 황남동 109호 3·4곽 - 황남동 110호 - 황남대총 - 금관총 - 천마총 - 금령총 - 보문동 합장분(보문리 부부총)의 상대편년은 학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상대 편년은 주로 토기를 대상으로 배열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봉총의 토기를 비교하면 서봉총의 상대적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서봉총 토기는 금령총보다는 형식적으로 늦고 보문동 합장분보다는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와의 상대편년에 서봉총을 넣는다면 황남대총 - 금관총 - 천마총 - 금령총 - 서봉총 - 보문동 합장분으로 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연대는 황남대총 남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놀지왕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서봉총은 6세기 전반, 즉 6세기 1/4분기로 편년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은합의 신묘년도 511년일 가능성이 높다.

## (2) 서봉총의 주인공

서봉총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피장자를 여성으로 보고 금관총 피장자의 배우자로 본 아나자와 와코우의 연구가 있다. 아나자와 와코우는 금관총 피장자를 499년에 죽은 소지마립간으로, 서봉총 피장자는 소지마립간의 비인 내숙(乃宿) 이찬(伊伐)의 딸 선혜(善兮) 부인으로 비정했는데<sup>26)</sup>, 그 근거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sup>27)</sup>.

서봉총의 피장자가 태환이식을 착용하고 있으며 대도가 출토되지 않았고 대장식의 요패를 피장자 오른쪽 허리에 찬 점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피장자를 여성으로 보아왔으나 피장자가 착용한 이식이 태환이식이라는 점을 이번 보고서 간행 과정에서 확인한 점은 서봉총의 주인공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성과이다. 서봉총은 일부 연구자가 소지왕릉으로 비정한 서봉황대의 배총이다. 서봉황대 배총인 서봉총의 연대가 6세기 1/4분기이고, 주인공이 여성

21) 毛利光俊彦, 1987 「新羅積石木槨墳の構造變遷について」(シンポジウム報告「新羅の王陵の研究」) 『朝鮮學報』 122.

22) 伊藤秋男, 1972 「耳飾の形式學的研究に基づく韓國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 『朝鮮學報』 64.

23) 馬目順一, 1995 「古新羅王族墓の立華飾黃金製寶冠編年試論」 『古代探叢IV-瀧口宏先生追悼考古學論集』.

24) 穴澤和光, 1972 「慶州古新羅古墳の編年」 『古代學』 18-2.

25) 穴澤和光 · 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の調査 - 梅原考古資料と小泉顯夫の回想にもとづく發掘狀況の再現と考察」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26) 穴澤和光 · 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の調査 - 梅原考古資料と小泉顯夫の回想にもとづく發掘狀況の再現と考察」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27) 아나자와 와코우는 발굴을 담당하 고이즈미 아키오가 여성으로 추정한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 참고로 고이즈미 아키오가 서봉총 북분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판단한 근거는 粧刀의 존재였다.

이라는 점은 아나자와 와코우가 주장한 서봉총을 금관총과의 부부 관계로 보기보다 서봉황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올 듯하다.

### 3. 중고기 왕릉

#### 1) 중고기 왕릉의 비정

중고기 왕릉의 분별은 마립간기 왕릉과 달리 비교적 분명하다. 호석 구조의 변천과 봉분 규모의 변화, 장지 기록 등을 근거로 중고기 법흥왕릉과 진흥왕릉, 진지왕릉은 현재 무열왕릉 뒤 4기의 대형분에서 찾고 있다. 선덕여왕릉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 등에 그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사천왕사가 있는 낭산 정상에 위치하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자가 지지하고 있다<sup>28)</sup>. 진평왕릉과 진덕여왕릉은 분명하지 않으나 강인구와 김용성은 전현덕왕릉을 진평왕릉으로 비정한 바 있다.

중고기 왕릉으로 비정되고 있는 고분은 발굴된 적이 없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가 치밀한 문헌 연구와 외형 분석으로 법흥왕릉과 진흥왕릉, 진지왕릉을 구체적으로 비정하였다. 서악동 무열왕릉 뒤 대형분은 가장 위쪽에서부터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이 위치하는데, 강인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축조되었다고 보고(1→2→3→4호분) 1·2·3호분을 각각 법흥왕릉, 진흥왕릉, 진지왕릉으로 비정하고, 4호분을 진지왕의 아들이자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문흥대왕)의 묘로 비정했다. 이근직은 강인구와는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축조되었다고 보고(4→3→2→1호분), 4호분과 3호분은 법흥왕릉과 그의 부인인 보도부인릉, 3호분을 진흥왕릉, 4호분을 진지왕릉으로 비정했다. 이근직의 비정 안은 법흥왕릉과 왕비릉이 횡혈식 석실임에도 마립간시기의 매장 습속이 남아 각각 단독으로 조성되었고, 진흥왕릉 이후부터 합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점이 특징이다. 김용성도 서악동 대형분의 축조 순서는 이근직의 안을 지지하나 법흥왕비릉보다 진흥왕비릉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4호분을 법흥왕릉, 3호분을 진흥왕비릉, 2호분을 진흥왕릉, 1호분을 진지왕릉으로 비정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강인구 <sup>29)</sup>	이근직 <sup>30)</sup>	김용성 · 강재현 <sup>31)</sup>	윤상덕 <sup>32)</sup>
법흥왕릉	서악동1호	서악동4호	서악동4호	서악동4호
진흥왕릉	서악동2호	서악동2호	서악동2호	서악동3호
진지왕릉	서악동3호	서악동1호	서악동1호	서악동2호
진평왕릉	전현덕왕릉	-	전현덕왕릉	-
선덕여왕릉	선덕여왕릉	선덕여왕릉	선덕여왕릉	-
진덕여왕릉	진지마왕릉	-	-	-
비고	서악동4호(문흥대왕릉)	서악동4호(법흥왕비릉)	서악동3호(진흥왕비릉)	-

표 5\_중고기 왕릉 비정안

28) 과거 이병도는 선덕여왕릉의 호석에서 가공한 받침석을 확인하고 그것을 신문왕릉 또는 효소왕릉 중 하나로 추정했다. 최근 이근직은 이병도의 추정이 1949년 잘못 보수한 호석 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가공한 받침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현재 선덕여왕릉은 타당하다고 했다. 이병도, 1969 「김유신묘고」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pp.246~249.

29) 강인구, 1984 「신라 왕릉의 재검토(1)-류화계의 '라능진안설'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41. 강인구, 1987 「신라 왕릉의 재검토(3)」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30)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4기의 대형분 중 전술한 3개의 왕릉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분을 대상으로 각각의 묘주를 비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비정이 아닌가 한다. 또 이러한 비정의 근거가 되는 호석 구조, 봉분의 규모는 현재 외형으로만 확인되는 현상이므로 발굴 결과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또 이근직이 왕릉 비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서약동 고분의 남측 사지가 영경사 혹은 애공사가 분명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매장주체부가 석실임에도 왕과 왕비가 따로 단독분을 축조했다는 설명 역시 석연치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 4. 중대 및 하대 왕릉

##### 1) 중대와 하대의 왕릉 비정

이 시기 왕릉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과 기이편의 장지 기사를 근거로 하면서 왕릉의 입지, 호석 구조, 봉분의 크기, 석물, 왕경과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별해 왔다. 장지 기사와 금석문으로 안정적으로 비정할 수 있는 왕릉은 무열왕릉과 문무왕릉, 흥덕왕릉,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쾌릉 정도이다. 이외에 왕릉을 비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 것은 호석의 구조<sup>33)</sup>이며, 십이지상의 양식도 편년의 근거로 활용했다<sup>34)</sup>. 또 발굴된 중대 이후 추정 왕릉으로는 전현강왕릉<sup>35)</sup>, 전신덕왕릉<sup>36)</sup>, 구정동 방형분<sup>37)</sup>이 있고, 전민애왕릉의 주변이 조사되었으며<sup>38)</sup>, 최근 경주 신당리 산7번지 내 1호석실<sup>39)</sup>(이하 신당리 1호 석실분으로 약함)과 경주 소현리 유적 석실분<sup>40)</sup>(이하 소현리 석실분으로 약함), 구황동 폐왕릉<sup>41)</sup>이 발굴되었다.

중대와 하대의 왕릉 비정은 강인구와 이근직, 김용성이 주도적으로 검토해 왔다. 강인구는 문헌 기록의 장지 기사를 토대로 하고 왕릉 호석을 분류해 왕릉을 편년하고 비정했다. 이근직은 강인구가 분류한 호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장지 기사를 비롯한 왕릉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왕릉을 비정했다. 김용성은 앞의 두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각각 조합해 능원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형식을 분류해 능원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왕릉을 비정했다. 이들이 비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31) 김용성·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15.
  - 32) 윤상덕, 2014, 「봉토 외형으로 본 신라 전·중기의 왕릉 추정」 『한국고고학보』 93.
  - 33) 강우방, 1990 『원융과 조화-한국고대조각사의 원리』 pp.317~355. 강인구, 2000, 『고분 연구』, pp.457~458. 이근직, 『신라왕릉연구』, pp.446~455. 김용성, 2012,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11, pp.124~137.
  - 34) 강우방, 1990 『원융과 조화-한국고대조각사의 원리』 pp.317~355. 강인구, 2000, 『고분 연구』, 이근직, 『신라왕릉연구』, 김용성, 2012,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11.
  - 3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현강왕릉 보수수습조사보고서』.
  - 36) 박일훈, 1963 「경주 삼릉 석실고분-전신덕왕릉-」 『미술자료』 8.
  - 37) 有光教一, 1936 「十二支生肖の石彫を繞らした新羅の墳墓」 『靑丘學叢』 25.
  - 38) 국립중앙박물관, 1985 『전민애왕릉 주변정비보고』.
  - 39)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경주 신당리 산7번지 내 1호 석실분』
  - 40)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한울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소현리 유적 I』.
  - 41) 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왕	재위기간	강인구 <sup>42)</sup>	이근직 <sup>43)</sup>	김용성 <sup>44)</sup>	비고
중 대	무열왕	654-661	무열왕릉	무열왕릉	무열왕릉	
	문무왕	661-681	문무왕릉	문무왕릉	문무왕릉	
	신문왕	681-692	전진평왕릉	전진평왕릉	전진평왕릉	구황동 폐왕릉(강우방/강봉원)
	효소왕	692-702	전신문왕릉	전신문왕릉	전신문왕릉	
	성덕왕	702-739	전정강왕릉	전성덕왕릉	전성덕왕릉	
	효성왕	739-742	-	-	-	구황동 폐왕릉(박광렬)
	경덕왕	742-765	전현강왕릉	전김유신묘	-	
	혜공왕	765-780	전민애왕릉	-	전민애왕릉	
하 대	선덕왕	780-785	-	-	-	
	원성왕	785-799	전성덕왕릉	괘릉	괘릉	
	소성왕	799-800	-	전경덕왕릉	-	
	애장왕	800-809	-	전민애왕릉	-	
	헌덕왕	809-826	-	전헌덕왕릉	-	
	흥덕왕	826-836	흥덕왕릉	흥덕왕릉	흥덕왕릉	
	희강왕	836-838	-	능지탑 십이지	전경덕왕릉	
	민애왕	838-839	-	구정동 방형분	구황동 폐왕릉	
	신무왕	839-839	괘릉	전진덕왕릉	전김유신묘	
	문성왕	839-857	-	전현강왕릉	전진덕여왕릉	
	헌안왕	857-861	-	전정강왕릉?	-	
	경문왕	861-875	전경덕왕릉	-	구정동 방형분	
	현강왕	875-886	-	-	-	
	정강왕	886-887	-	-	-	
	진성왕	887-897	-	-	-	
	효공왕	897-912	-	-	-	
	신덕왕	912-917	-	-	-	
경명왕	917-924	-	-	-		
경애왕	924-927	전일성왕릉	-	-		

표 6\_중대와 하대 왕릉 비정안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대와 하대 26명의 왕 중 강인구는 12개의 왕릉을, 이근직은 16개의 왕릉을, 김용성은 13개의 왕릉을 비정했다. 이 중 무열왕릉, 문무왕릉, 신문왕릉, 효소왕릉, 흥덕왕릉은 3인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문무왕릉은 특수한 사례이고, 무열왕릉과 흥덕왕릉은 현재의 무열왕릉과 흥덕왕릉으로, 신문왕릉은 전진평왕릉, 효소왕릉은 전신문왕릉으로 비정했는데, 그 근거를 살펴봐도 이 5기의 왕릉은 거의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괘릉은 강인구는 신무왕릉, 이근직과 김용성은 원성왕릉으로 추정했다. 원성왕릉으로 비정한 근거인 송복사비를 비롯한 관련된 내용<sup>45)</sup>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원성왕릉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 전성덕왕릉도 강인구는 정강왕릉으로 비정했으나 이근직과 김용성의 주장대로 성덕왕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중대와 하대의 왕릉 중 가장 안정적은 것은 문무왕릉, 무열왕릉, 신문왕릉, 효소왕릉, 성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이다. 중대 초기의 왕릉은 안정적은 것에 비해 하대로 갈수록 불안정한 셈이다.

나머지 왕릉의 비정 차이는 각각의 연구자마다 호석의 구조 변천과 십이지상의 변화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래도 십이지상의 변천은 연구자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sup>46)</sup>. 그러나 호석의 상대편년은 연구자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호석의 개축과 보수가 이

42) 강인구, 1984 「신라 왕릉의 재검토(1)-류화계의 ‘라능진안설’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41. 강인구, 1987 「신라 왕릉의 재검토(3)」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43)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44) 김용성 · 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15.

45) 진홍섭, 1965 「경주 감산사지 · 송복사지의 조사」 『고고미술』 6. 김복순, 2014 「경주 괘릉의 문헌적 고찰」 『신라문화』 44.

시기 왕릉을 편년하는 데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전현강왕릉 보고자가 이미 지적했듯이<sup>47)</sup> 내호석과 외호석이 함께 발견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왕릉을 개보수한 기록이 꽤 전해 내려오는데<sup>48)</sup> 신라 중대와 하대의 개축과 그 이후의 개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호석의 상대편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현재의 자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앞으로 자료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왕릉 연구를 마립간기, 중고기, 중대와 하대로 구분하여 개관하고 각 시기별로 몇 가지 문제점과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왕릉 비정을 주된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왕릉 연구의 기초 작업이 바로 왕릉의 비정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음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묘제의 변천이나 능원 연구는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 아마도 부족한 문헌 기록과 발굴 자료의 한계로 외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중고기와 중대 전반기 왕릉 비정은 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분 발굴은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는 마립간기를 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신라 왕릉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고기 석실분 단계 이후의 발굴이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발굴된 왕릉급 고분 자료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진전된 신라 왕릉 연구를 위해 현재 서악리 중고기 왕릉군이나 논쟁이 되고 있는 특정 왕릉의 학술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이 글은 2017년 한국고대사학회 제19회 하계세미나 발표문을 강연 주제에 맞게 줄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강우방, 1990 『원융과 조화-한국고대조각사의 원리』  
강인구, 1984 「신라 왕릉의 재검토(1)-류화계의 '라능진안설'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41.  
강인구, 1987 「신라 왕릉의 재검토(3)」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강인구, 2000, 『고분 연구』.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경주 신당리 산7번지 내 1호 석실분』  
구자봉, 2005 「삼국시대의 장식대도 연구」 『북방사논총』 5, p27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현강왕릉 보수수습조사보고서』.  
국립경주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국립중앙박물관, 1985 『전민애왕릉 주변정비보고』.  
권운미, 2016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이사지왕도'명 대도의 제작기법 고찰」 『동원학술논문집』 17.

46) 임영애, 2013 「신라 왕릉 조각의 미술사적 조망과 특수성」 『신라문화』 41.

4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현강왕릉 보수수습조사보고서』.

48) 예를 들어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 영도 18년(1742) 9월에 홍수로 경주 현덕왕릉이 무너지자 임금이 향축을 보내어 도신(관찰사)에게 수축하기를 명하였다고 하는 기사가 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왕릉 수축 기사는 꽤 확인되지만 원형을 크게 변형시키는 수축은 아니었을 것이다.

- 김대환, 2002 「영남지방 적석목곽묘의 시공적 변천」 『영남고고학』 29.
- 김대환, 2014, 「IV. 서봉총 출토 유물의 특징과 축조 연대」 『경주 서봉총 I(유물편)』.
- 김대환, 2016 「V. 고찰: 금관총의 구조와 주인공」 『경주 금관총(유구편)』.
- 김복순, 2014 「경주 괴릉의 문헌적 고찰」 『신라문화』 44.
- 김용성 · 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15.
- 김용성, 2012,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11.
- 김재홍, 2014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대도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 86.
- 김창호, 2014 「신라 금관총의 이사지왕과 적석목곽묘의 편년」 『신라사학보』 32.
- 馬目順一, 1995 「古新羅王族墓の立華飾黄金製寶冠編年試論」 『古代探叢IV-瀧口宏先生追悼考古學論集』.
- 毛利光俊彦, 1987 「新羅積石木槨墳の構造變遷について」(シンポジウム報告「新羅の王陵の研究」) 『朝鮮學報』 122.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4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 박일훈, 1963 「경주 삼릉 석실고분-전신덕왕릉-」 『미술자료』 8.
- 浜田耕作, 1929 「慶州の瑞鳳塚」 『考古遊記』.
- 濱田耕作, 1932 「慶州の金冠塚」.
- 浜田耕作, 1939 「新羅の寶冠」 『考古學研究』.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 有光教一, 1936 「十二支生肖の石彫を繞らした新羅の墳墓」 『靑丘學叢』 25.
- 윤상덕, 2014, 「봉토 외형으로 본 신라 전 · 중기의 왕릉 추정」 『한국고고학보』 93.
- 윤상덕, 2016, 「금관총 피장자의 성격 재고」 『고고학지』 22.
-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 伊藤秋男, 1972 「耳飾の形式學的研究に基づく韓國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 『朝鮮學報』 64.
- 이병도, 1969 「김유신묘고」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 李弘植, 1954 「延壽在銘 新羅 銀盒杆에 대한 一、二의 고찰」 『최현배선생님 환갑기념 논총』.
- 이희준, 1996 「경주 월성로 가-13호 적석목곽묘의 연대와 의의」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임영애, 2013 「신라 왕릉 조각의 미술사적 조망과 특수성」 『신라문화』 41.
- 진흥섭, 1965 「경주 감산사지 · 송복사지의 조사」 『고고미술』 6.
-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소현리 유적 I」.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임당 1호분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3차)」.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임당 1호분 발굴조사」.
- 穴澤和光 · 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の調査 - 梅原考古資料と小泉顯夫の回想にもとづく發掘狀況の再現と考察」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 穴澤和光, 1972 「慶州古新羅古墳の編年」 『古代學』 18-2.

## ※ 참고자료 열람

###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

---

---

---

---

---

---

---

---

---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